

CULTURE NOTE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로비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7
July

SUN	MON	TUE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WED	THU	FRI	SAT
	1	2 ●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 '네 개의 시선' - 최창판택 경사났네	3
7 ●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 '네 개의 시선' - 반주	8	9 ●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 '네 개의 시선' - 꽃을 피게 하는 것은 ● 2021 진주ART FORUM 아름다운 동향전(~13일) ● 황금빛 색채화가 클립트 레플리카전(~8월 22일)	10
14	15 ● 대한민국 경남환경 미술대전(~19일)	16	17
21	22	23	24
28 ● 리버사이드 앙상블 '경남예술 창작가곡의 밤'	29	30	31

8
August

SUN	MON	TUE
1	2	3
8	9	10
15	16	17
22	23	24
29	30	31 ● 페스티벌 행버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WED	THU	FRI	SAT
4	5	6	7
11	12 ● 제35회 대한민국 충효미술대전(~16일)	13	14
18	19	20 ● 연극 '코리올라누스'	21 ● 연극 '코리올라누스' ● 2021 개천미술대상전 1차 심사 및 본심사
25	26 ● 제3회 오로라회 정기전 (~29일)	27	28 ● 리버사이드 앙상블 '신노이' ● 2021 개천미술대상전 2차 접수 및 심사(~29일)

9
September

SUN	MON	TUE
5 ● 진주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YOUNG ARTIST CONCERT	6	7
12	13	14
19	20	21 추석
26 ● 개천예술제 무용경연대회	27	28 ● 음악으로 하나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공연 '환희의 송가'

WED	THU	FRI	SAT
1	2 ● 박규민 개인전 어머니의 기억(~7일) ● 진주원로작가전(~6일)	3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4 ●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제20회 정기연주회
8 ● 클라라 주미 강&김선옥 듀오 리사이틀	9 ● 제나뎡고&하주 온라인 콘서트 RIVERSIDE	10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88회 정기연주회 ● 제17회 진주사생화전 (~14일)	11 ● 제8회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15	16 ● 거장의 여정 이성자 '은하수'	17	18 ● 최한울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키타빌레
22	23 ● 경남무형문화재 제29호 소목장 정진호 고회전 (~28일)	24 ● 제70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 제30회 진주청년작가회 특별정기전(~28일) ● 제70회 개천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시(~28일)	25 ● 제70회 개천예술제 전국 무용경연대회
29	30 ● 리버사이드 앙상블 '트리오 왁스'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 · 출연진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 - 네 개의 시선

6. 30. 수 19:30

7. 2. 금 19:30

7. 7. 수 19:30

7. 9. 금 19:30



네 개의 시선이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가 6월 30일과 7월 2일, 7일, 9일에 걸쳐 총 4일간 연극 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4개의 예술극단이 그들만의 연극 언어를 통해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6월 30일에는 극단 깍지 <지금이전세기>가 경남도민을 만난다. <지금이전세기>는 한 부부가 갑작스레 찾아온 갱년기를 맞아,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 현명하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익살스럽고 코믹하게 그려낸다.

이어 7월 2일에는 큰들문화예술센터가 <최참판댁 경사났네>를 선보인다. 소설 <토지>를 바탕으로한 <최참판댁 경사났네>는 마당극적 재미를 살려 재구성한 작품으로, 장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연이다.

7월 7일에는 극단 현장의 <반추>가 무대에 선다. <반추>는 2021 제39회 경상남도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한 남자가 '소설 쓰기'를 매개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가족 간의 갈등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묻는다.

끝으로 7월 9일에는 극단 예도의 <꽃을 피게 하는 것은>이 펼쳐진다.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어느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벌어지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리얼하게 표현해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1 여름공연예술축제, 깍지, 큰들, 현장, 예도 등 4개의 예술극단이 선사하는 한여름 밤의 연극 무대로 경남도민을 초대한다.

극단 깍지 지금이전세기 · 8세 이상 · 5,000

큰들문화예술센터 최참판댁 경사났네 · 8세 이상 · 10,000

극단 현장 반추 · 12세 이상 · 10,000

극단 예도 꽃을 피게 하는 것은 · 12세 이상 · 10,000

패키지 티켓

4개 공연 · 40% 할인

3개 공연 · 35% 할인

2개 공연 · 30% 할인

**2021
SUMMER
PERFORMING
ARTS
FESTIVAL**

양정웅 연출의 셰익스피어 마지막 비극

코리올라누스

CORIOLANUS

공동제작

LG아트센터

경상남도문화재단

주관 극단 여행자

원작 W.셰익스피어

번역/드라마티크 이현우

연출 양정웅

공동각색

양정웅 김세한

남윤호 남우찬

무대 임일진

음악 장영규

조명 여국균

의상 김도연

분장 전주영

소품 최혜진

음향 안형록

조연출 남우찬

이보미 박현지

무대감독 김상훈

제작피디 이은규

출연

남윤호 김도완

김은희 김리나

한윤춘 김대진

한상훈 김친곤

김기분 한인수

최경훈 이화정

권은혜 김호준

김범진 김해중

김승한

8. 20. - 8. 21.

금 19:30

토 15:00

대공연장

R 50,000

S 30,000

16세 이상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총 연출을 맡았던 양정웅이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한다. 개성 넘치는 해석과 독보적인 미장센으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그가 5년 만의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라누스>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를 구하고 집정관에 선출되었던 용맹한 장군 코리올라누스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추방되는 과정과 그 이후 벌이는 배신과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연극과 영화 등으로 많이 제작되어 왔는데, 최근 영국 국립극장 NT Live에서 상영했던 버전에서는 톰 히들스턴이 코리올라누스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되었고, 유명 영화배우 랄프 파인즈가 감독하고 직접 주연을 맡았던 영화 역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으로 영국 바비칸 센터와 셰익스피어 글로브 무대를 밟은 유일무이한 연출가 양정웅은 명실공히 셰익스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평가 받아왔다. 또한 유인촌, 남윤호 출연의 <페리클레스>, 문근영과 박정민 출연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밖에 <환>(맥베스 원작), <햄릿>, <십이야> 등 약 7편의 셰익스피어 작품을 연출하면서, 고전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상에 대한 깊은 고찰을 매력적인 무대 언어로 선보여왔다.

특히 이번 <코리올라누스>는 2009년 <페르 권트>로 대한민국연극대상의 영광을 함께 만들었던 임일진 무대미술가와 장영규 음악감독 등이 창작진으로 합류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리올라누스 역에는 <페리클레스>와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뉴질랜드 초청 공연에서 존재감을 확인시켰던 배우 남윤호가 활약할 예정이며, 한동안 우리 연극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 앙상블의 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클라라 주미 강&김선욱 듀오 리사이틀

9. 8.

수 19:30

대공연장

V 5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프로그램

루트비히 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F장조, 작품번호 24 <봄>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A장조, 작품번호 12-2

바이올린 소나타 제10번 G장조, 작품번호 96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두 아티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욱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욱은 유럽 등지에서 탄탄한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며 듀오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그런 두 사람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함께 듀오 무대를 펼친다.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을 지닌 클라라 주미 강은 아시아와 유럽 주요 및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국제 경력을 쌓았다.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과 동시에 다섯 개의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국제 콩쿠르(2009년)와 샌다이 콩쿠르(2010년)에서도 우승하는 등 주요 콩쿠르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 음악원 지휘 석사과정(MA)을 마친 후 2019년, 영국 왕립 음악원 회원(FRAM)이 되었다. 2004년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05년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욱은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연구에 오롯이 힘을 쏟았으며, 올해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사이클 음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1798년에서 1812년 사이에 작곡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는 두 악기의 역할이 이전보다 동등해지면서 두 연주자가 긴밀하게 호흡하는 특징이 강조된 대표적인 바이올린-피아노 듀오 레퍼토리이다.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들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통해 처음 듀오 무대를 그린다. 클라라 주미 강과 김선욱이 그리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기대해 보자.

7.9.- 8.22.

10:00~18:00 제2전시실

전시해설 11:00, 14:00, 16:00

매주 월요일 휴관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상남도

주관  경상남도현대미술관  미술전시컴퍼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만난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 레플리카전〉을 진행한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예술의 대담한 개혁자이자 화가로 평가된다.

아르누보 계열의 장식적인 양식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미술에 대해 ‘빈 분리파’를 결성했다. 클림트의 작품은 관능적인 여성 이미지와 찬란한 황금빛,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성과 사랑, 죽음에 대한 풍성하고도 수수께끼 같은 알레고리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에로티시즘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빈 분리파의 탈퇴는 클림트의 〈황금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그는 특유의 찬란한 황금빛과 오리엔탈 비잔틴풍의 장식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눈에 띄는 독창적인 양식을 완성시켰다.

이번 전시에서는 클림트의 대표 작품 〈키스〉, 〈베토벤 프리즈〉, 〈생명의 나무〉 등을 레플리카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나도 클림트’와 ‘매직큐브’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황금빛 색채화가 클림트 레플리카전



리버사이드 앙상블

경남예술

창작가곡의 밤

7. 28.

수 19:30

로비

전체관람

프로그램

의령수박	작시 윤재환 작곡 이형근
만날고개	작시 정목일 작곡 김봉천
수련	작시 이월춘 작곡 서윤정
진주비빔밥	작사 이순각 작곡 김호준
창원의 서정	작시 이달균 작곡 전옥용
섬진강	작시 한범수 작곡 오혜란
오아리꽃	작시 이정홍 작곡 김종민
아, 자굴산	작시 곽향련 작곡 김지만
사랑이 싹트네	작시 권오단 작곡 손정훈
울어라 불종	작시 김일태 작곡 한정훈
잠투정	작시 이영자 작곡 최천희
산촌	작시 이광석 작곡 조두남



소프라노 이종은
 밀라노, G.Verdi 국립음악원 졸업
 제22회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대상
 Valsesia Musica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現 경남예술고등학교 출강, 한국국제대학교 겸임교수



소프라노 김효주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악대학 졸업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코지 판 투테> 외 다수 주역
 現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베이스 김의진
 뉴욕 맨하탄 음악대학 석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 뉴욕지구 우승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라 체네렌톨라> 외 다수 주역
 現 창신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테너 이해성
 창원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L. Refice 국립음악원 비엔노 과정 졸업
 오페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외 다수 주역
 現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창원시여성합창단 지휘자



피아니스트 홍지혜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 반주과 디플로마 취득
 BIELLA 국제 콩쿠르 1등, ANTON RUBINSTEIN 국제 콩쿠르 2등,
 오페라 <리골레토>, <라 보엠>, <토스카> 외 다수 음악감독 역임
 現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반주과 교수, 국제반주협회 회장



피아니스트 정은정
 인디애나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 Performance 디플로마 취득
 미국 Bodowin Music Festival 연주, Accompanying assistant 역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 협연
 現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리버사이드 앙상블

신노이

8. 28.

토 19:00

대공연장

8세 이상

소리 김보라

더블베이스 이원술

일렉트로닉 사운드 고담

거문고 이정석

신노이(SINNOI)는 국내 재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동중인 베이시스트 이원술과 경기민요와 정가를 두루 섭렵한 김보라, 일렉트로닉 사운드 아티스트, 거문고 연주자가 함께 하는 밴드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소리와 재즈의 더블베이스 그리고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만나 각 음악이 지닌 특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주를 선보이며, 한국 컨템포러리 뮤직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렉트로닉 사운드 아티스트 고담과 거문고 연주자 이정석이 합류하여 4인 편성의 새로운 신노이를 선보인다.

팀의 음악적 중추를 맡고 있는 베이시스트 이원술은 2012년 재즈와 클래식이 결합된 'Third Stream' 스타일을 훌륭하게 표현해낸 앨범 <Point of Contact>로 제1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재즈음반상을 수상했다. 그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주자들과 함께 창의적인 음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팀의 음악색을 가장 뚜렷하게 대변하는 김보라는 경기민요 명창인 이춘희 선생으로부터 경기민요를 이수 받았으며, 현재 강권순 선생 문하에서 정가를 수학하며 'post 강권순'으로 국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구음을 통해 연주자들은 물론 전통무용인들과도 협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올해 새롭게 합류한 일렉트로닉 사운드 아티스트 고담은 2017년 첫 번째 바이닐 <Alternate Dimensions> 발매 이후, 섬세하게 신서사이징된 트랙들로 리스너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또한, 거문고 연주자 이정석은 현재 월드뮤직 앙상블 '거문고팩토리' 및 국악밴드 'MEC (Micro Expression Club)'의 대표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거문고팩토리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유수 해외 음악페스티벌 및 음악마켓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신노이라는 이름은 시나위를 다르게 일컫는 말로, 시나위는 본래 가장 오래된 전통음악인 무악으로부터 전래되어, 각 악기가 가진 이음(異音)적인 특성을 조화롭게 연주하는 합주곡을 뜻한다. 전통음악의 소리와 악기, 재즈의 더블베이스,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시나위를 8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리버사이드 앙상블 트리오웍스 콘서트

국내 최초의 오르간 트리오가 들려주는 가장 화려한 사운드를 만나보자. 블루스 기타의 리더 찰리정, 가장 각광받는 하몬드 오르간 연주자 성기문, 한국을 대표하는 드러머 오종대가 트리오웍스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멤버 모두 자신의 팀과 세션 활동을 오랜 세월 펼친 베테랑들이다. 흔히 만나볼 수 없는 오르간 재즈 트리오의 특유의 출렁이는 소리와 담백하면서도 블루지한 팀 사운드가 매력적이다.

2019년 1집 음반 발매 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서울숲재즈페스티벌, 태화강재즈페스티벌, 대구국제재즈페스티벌, 구마모토재즈페스티벌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한국대중음악상 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현장감있게 펼쳐질 트리오웍스의 노련하고 깊은 연주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즐겨보자.

프로그램

- Gunsan Gaka
- Wind
- Summer Time
- Reality
- Silence
- 바람의 땅
- Moon Blues

9. 30.

목 19:30

대공연장

8세 이상

드럼 오종대
기타 찰리정
오르간 성기문



뮤지컬 세종 1446

11. 19. - 11. 20.

금 19:30
토 15:00

대공연장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경상남도
GYEONGNAM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HJCULTUR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그린다.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 창제에 숨겨진 세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세종의 일대기를 그려냄과 동시에 인간 세종에 대해 재조명한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한글창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세종의 시련과 고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에 근간을 두었던 세종의 창의와 혁신을 밀도있게 그려낸다.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이야기를 11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뮤지컬 '세종 1446'〉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미조×말로×박주원 THE 3 LIVE

12. 16.

목 19:30

대공연장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경상남도
GYEONGNAM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jhJNH뮤직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요계의 전설 '정미조', 최고의 재즈 보컬 '말로', 신들린 핑거링의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한 자리에 모여 팝과 재즈를 넘나드는 '음악 매직 타임'을 선물한다. 삶의 깊은 서사를 전하는 정미조와 자신이 원하는 음을 자유롭게 부리며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말로, 그리고 객석을 압도하는 박주원의 기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음악적 장관을 선사할 것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정미조×말로×박주원 THE 3 LIVE〉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